

허가 받은 사람이나 일정시기에 5년근 이상의 야생 삼을 채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에서 캐나다 화기삼은 2006년까지는 수입의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은 2012년 26,765천 달러어치를 수출한 이후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의 화기삼 수입은 200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24. 중국의 연도별 인삼 수입국과 수입액(2000-2014)

자료: kita.net

(2) 한국의 인삼교역

한·중간의 인삼교역은 그리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호간에 높은 관세 장벽이 있고 서로 경쟁관계여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삼의 한국 수입관세는 수삼과 백삼의 경우 222.8%이며 홍삼의 경우에는 754.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삼은 1907년 전매법이 시행되면서 전매업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했다. 1997년 7월에 전매법이 폐지된 이후부터 비로소 민간 업체들도 자유롭게 홍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삼공사 등 업체에 따르면 홍삼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 3500억 원에 이른다. 2008년 8,000억 원에서 6년 새 69%나 급성장했고 계속 커지고 있다. 2005년에 전체 인삼 중 23%에 불과했던 홍삼은 2012년 44.5%로 비중이 늘었고, 인삼을 그냥 말린 백삼(白蔘)의 비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4%로 급락했다.

홍삼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수삼이나 백삼보다 약효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을 구성하는 진세노사이드가 백삼에는 24종이 있지만 홍삼에는 38종이나 들어 있다는 것이다. 각 진세노사이드마다 효능이 다르다. 홍삼은 노화 방지, 알코올 해독, 면역 활성화, 항암, 성장 발육, 혈당 하락, 비만 억제 등의 효능이 백삼보다 뛰어나다. 표 56은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입 실적이다.

표 56. 한·중 연도별 인삼 수출입액 추이(중국통계)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출액(중국→한국)	연도	수입액(한국→중국)
2014	2	2014	15,691
2013	1,496	2013	21,694
2011	1,332	2011	37,135
2009	1,198	2009	3,343
2007	2,159	2007	657
2005	1,650	2005	1,070
2003	358	2003	711
2001	540	2001	549

자료: kita.net